

성령의 성화 사역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 연구 : 개혁주의적 조망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in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s Sanctification: A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김성준 (Sungjun Kim)**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theological identity of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and to examine their relatio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progressive sanctification, a central theme in Reformed pneumatology. In contemporary Korean churches, both counseling and coaching have been widely employed as ministries for healing and growth. Yet the uncritical appropriation of secular psychology and humanistic self-development discourse has often obscured their theological boundaries and weakened their ministerial identity. In response, this study conducts a 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drawing on John Calvin's and Herman Bavinck's doctrines of the Holy Spirit, sanctification, and humanity as theological norms, while critically engaging Gary R. Collins's coaching theory and major Korean studies on Christian counseling and coaching.

First, this study argues that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corresponds to the twofold movement of sanctification, namely, the mortification of the old self and the vivification of the new self. In this regard, Christian counseling may be understood as a ministry of restorative sanctification that addresses sin, woundedness, and distorted patterns of the self, whereas Christian coaching may be understood as a ministry of progressive and missional sanctification that assists believers in discerning and practicing their God-given gifts and calling. Second, the study proposes a triadic model of ministry in which genuine change is attributed to the sovereign work of the Holy Spirit, while counselors and coaches function as assisting instruments under the unity of Word and Spirit. Third, it presents a four-stage continuum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6일 최종수정, 6월 11일 게재확정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과 박사과정,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june0712@daum.net

of sanctification—restorative, transformative, practical, and missional—and argues that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are not separate programs but complementary forms of ministry whose relative emphasis varies along a single sanctifying process. Finally, by applying the Reformed doctrine of common grace and special grace, this study suggests theological criteria for the critical appropriation of secular therapeutic and coaching methods, and proposes an integrated congregational ministry framework in which counseling, coaching, and discipleship are organically related in an ecosystem of healing, growth, and sending.

In conclusion, this study contends that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should be understood as complementary ministries of *cura animarum* within the unified sanctifying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at such an understanding provides a theological and practical framework for the recovery of ministerial identity in the Korean church.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coaching, Reformed pneumatology, progressive sanctification, *cura animarum*

I. 서론

포스트모던 사조의 확산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기술 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현대인에게 전례 없는 존재론적 소외와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은 인간의 고유성과 경계를 상대화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김진아, 2022; 임준섭, 2021).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 역시 신자의 내면적 상처와 관계의 파편화, 영적 무기력과 소외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과 같은 조력 사역의 필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특히 조성국(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독교교육과 조력 사역은 시대가 변할수록 성경적 인간상의 이상을 현실의 목회 현장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편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미 20세기 초 헤르만 바빙크가 성경적 인간 이해와 심리 전반을 다루는 성경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근대 심리학의 발달 속에서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인간학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avinck, 1920 ; Bavinck, 1923).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이 야기한 인간 이해의 혼란 속에서, 기독교 상담과 코칭이 어떠한 신학적 인간론을 전제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Bavinck, 1967 ; VanBelzen, 2007).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목회 현장에서 상처 입은 성도의 치유와 성숙, 리더십 개발과 소명 실현을 돕는 도구로 활발히 수용되어 왔다(서우경, 2009; 홍석고, 2017; 권순달, 2015). Collins(2009)는 기독교 상담을 죄와 상처로 인해 파편화된 내면을 복음의 능력 안에서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크리스천 코칭을 회복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분별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성장 중심의 사역으로 이해하였다. 조영우(2020) 역시 크리스천 코칭의 목적을 세속적 자기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 실현으로 재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 과정에서 세속 심리학과 인본주의적 자기계발 담론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면서, 조력 사역의 신학적 경계와 정체성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전요섭, 2004 ; 정희정, 2023 ; 강연정, 2019). 정하윤과 도미향(2021)은 회복탄력성과 자기결정성에 기초한 코칭 접근이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정희정(2023)은 이러한 흐름이 개혁주의적 인간 이해와 충돌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 상담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상대화한 채 정서적 안정과 자아 통합에 머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크리스천 코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보다 인간 잠재력의 극대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전요섭, 2004 ; 정희정, 2023 ;

조영우, 2020).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참된 변화와 회복은 단순한 정서적 카타르시스나 자기 확신의 강화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최정호, 2010 ; 홍인택, 2020). 안정삼(2016)은 성령의 성화 사역을 ‘옛 사람의 죽임’과 ‘새 사람의 살림’이라는 이중 역동 안에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점진적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홍인택(2020)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의 성화 교리를 분석하면서, 성화의 열매를 단순한 정서적 안정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 거룩의 실제적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빙크 역시 『개혁교의학』에서 성령의 성화 사역을 옛 사람을 점점 더 죽이고 새 사람을 점점 더 살리는 유기적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이 과정이 인간의 지성·정서·의지 전체를 새롭게 질서 짓는 일임을 강조하였다(Bavinck, 1967 ; Bavinck, 박태현 역,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많은 연구와 현장 실천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을 서로 다른 학문 영역이나 기법으로 분절하여 다루거나, 프로그램 차원의 병렬적 결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성령의 성화 사역이라는 교의학적 전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서우경, 2009 ; 강연정, 2019).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조력 사역이 직면한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요청된다. 첫째,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에 기초하여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안정삼, 2016 ; 권혜령, 2019). 둘째, 두 사역이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어떠한 유기적 상관관계를 이루는지를 규명해야 한다(안정삼, 2016 ; 권혜령, 2019). 셋째, 이러한 신학적 통찰이 실제 목회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성화 단계에 따른 통합적 사역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안경승, 2026 ; 이혜정, 2023).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성령의 성화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개혁주의적 통전 틀 안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기독교 상담과 코칭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대체로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상담과 코칭의 실천적 통합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들이다(서우경, 2009 ; 홍석고, 2017 ; 권순달, 2015). 둘째,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을 중심으로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고찰한 연구들이다(전요섭, 2004 ; 안정삼, 2016 ; 홍인택, 2020 ; 권혜령, 2019). 셋째,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기초와 개념을 정립하려는 연구들이다(김정규, 2006 ; 조영우, 2020 ; 정희정, 2023 ; 김수연, 2023 ; 김정화, 2026 ; 박혜숙, 2024). 넷째, 통합 상담 모델과 사례개념화에 관한 신학적 논의들이다(강연정, 2019 ; 이선영, 2011 ; 유미경, 2018 ; 이혜정, 2023 ; 안경승, 202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조력 사역의 신학적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어느 한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두 사역의 통합을 기법적 차원에서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성령의 점진적 성화와 그 이중 역동(죽임과 살림)이라는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성화의 연속체(IV장. 그림 1 참조) 위에서 두 사역이 어떠한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통합적으로 모형화할 것이다(Bavinck, 1967 ; DeGraaff & Olthuis, 1978).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 문헌연구(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의 논리적 일관성과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구조화된 분석 절차를 거쳤다.

첫째, 신학적 규범 및 실천적 대상 문헌의 선정이다. 본 연구는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 존 칼뱅(John Calvin)의 『기독교 강요』와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의 『개혁교의학』을 교의학적 핵심 규범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칼뱅의 문헌은 성화의 ‘죽임과 살림’이라는 이중 역동을 가장 원형적으로 제시하며, 바빙크의 문헌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관점에서 세속 학문을 어떻게 전유할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기준을 제공한다. 아울러 크리스천 코칭의 실천적 원리를 분석하기 위해, 코칭의 목적을 ‘자기실현’이 아닌 ‘소명’으로 재조정된 Gary R. Collins의 『Christian Coaching』 및 국내 주요 크리스천 코칭 연구들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핵심 개념의 비교 및 대조 분석이다. 선정된 문헌들을 바탕으로 ‘회복적 성화(옛 사람의 죽임)’와 ‘진취적·선교적 성화(새 사람의 살림)’라는 신학적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기능적 특성과 교차 분석하여 두 사역의 신학적 정체성을 규명하였다.

셋째, 통합적 모형 구성 및 목회적 사례 적용이다. 분석된 개념을 토대로 성화의 연속체 안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이 중첩되고 전환되는 ‘통합적 관계 모형(IV장. 그림 1 참조)’을 구조화하였다. 나아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관점에서 세속 기법의 비판적 수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목회 현장의 영혼 돌봄(cura animarum) 체계에 적용하여 실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하에서 본 논문은 II장에서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 사역의 신학적 기초를 살피고, III장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정체성을 논의하며, IV장에서 성령의 성화 사역 안에서 두 사역의 관계 모형을 도식과 함께 제시할 것이다. 이어 V장에서는 교회 현장에서의 통합 사역 체계를 논의하고, VI장에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 사역의 신학적 기초

개혁주의 전통에서 성화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 습관의 강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신자를 새롭게 하시는 구속의 적용 과정으로 이해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따라서 성화는 인간의 자율적 자기계발이나 심리적 균형의 산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실현되는 영적 변혁의 과정이다(최정호, 2010 ; 안정삼, 2016).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신학적 기준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두 사역이 모두 인간의 변화와 성숙을 다루지만, 그 변화의 궁극적 원인과 방향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사역의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1. 성령의 사역과 성화의 본질

칼뱅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신자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였다(Calvin, 원광연 역, 2003). 곧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구원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신자 안에 현실화되며, 성화 역시 이 구속 적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성령은 단지 신앙의 보조적 요소가 아니라, 신자의 회개와 믿음, 중생과 성화, 인내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전 과정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다(최정호, 2010 ; Bavinck, 박태현 역, 2011).

바빙크는 성화를 인간 존재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 인격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유기적 사역으로 설명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이는 성화가 단순히 내면의 종교 감정이나 도덕 의지의 강화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지성·정서·의지와 관계,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질서화하는 과정임을 뜻한다. 따라서 개혁주의의 전통에서 성화는 심리적 안정이나 행동 수정의 차원을 넘어, 존재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재형성되는 사건으로 이해된다(홍인택, 2020 ; 안정삼, 2016).

또한 개혁주의 성령론은 성화를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며 언약적인 사건으로 본다. 성령은 신자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고, 그 연합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그러므로 성화는 자기 자신을 향한 몰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그리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웃 사랑과 소명적 삶의 확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권혜령, 2019 ; 홍인택, 2020).

2. 말씀과 성령의 유기적 통일성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의 사역을 언제나 말씀의 사역과 분리하지 않는다. 칼뱅은 성령과 말씀이 상호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역사한다고 보았으며, 성령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로, 말씀 없는 성령 이해는 주관주의와 신비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Calvin, 원광연 역, 2003). 바빙크 역시 말씀은 성령의 외적 도구이고 성령은 말씀의 내적 효력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두 사역의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하였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이러한 통일성은 바빙크의 인간론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조성국(2017)과 조피터계춘(2018)은 바빙크의 성경심리학적 인간론을 분석하면서, 타락한 인간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목회적 돌봄과 치유의 참된 토대가 마련됨을 논증하였다. 이는 기독교 상담과 코칭이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넘어 성령의 갱신 사역에 의존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원리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실천에서도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 상담이나 크리스천 코칭이 아무리 정교한 경청 기술과 질문 기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과 성령의 통일된 사역 안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인간 중심적 변화 담론으로 전락할 수 있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반대로 말씀만을 선언하면서도 실제 인간 이해와 변화 과정에 대한 분별이 결여될 경우, 조력 사역은 추상적 권면이나 도식적 처방에 머물 수 있다(권혜령, 2019 ; 이해정, 2023).

그러므로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조력자는 성령의 자리를 대신하는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봉사하는 도구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요섭(2004)은 기독교 상담의 변화 주체가 상담자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였고, 강연정(2019)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다양한 기법 수용 여부 역시 말씀의 규범성과 성화의 목적 안에서 분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점은 상담자와 코치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문성이 성령의 주권과 말씀의 규범 아래 놓일 때에만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3. 성화의 이중 역동성

개혁주의 성화론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화를 ‘옛 사람의 죽임’과 ‘새 사람의 살림’이라는 이중 역동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칼뱅은 회개를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전 존재적 전환으로 설명하였다(Calvin, 원광연 역, 2003). 이 전환은 부정적 측면에서 죄와 자기중심성의 약화를 포함하고, 긍정적 측면에서 의와 순종, 사랑과 경건의 증대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중 역동은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John Owen)의 사상에서도 깊이 있

게 다루어진다. 강현선(2012)은 오웬의 정서 이해를 분석하면서, 죄를 죽이는(mortification) 과정이 억압적인 금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참된 정서적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적극적인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안정삼(2016)은 이러한 성화의 구조를 ‘죽임’과 ‘살림’의 이중 운동으로 정리하면서, 신자의 성화가 어느 한순간에 완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점진적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홍인택(2020)도 성화의 열매를 단지 불안 감소나 자존감 회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 그리고 실제적 거룩의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개혁주의 전통에서 성화는 상처의 치유만도 아니고, 잠재력의 실현만도 아니라, 죄의 권세가 약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되어 가는 이중적이며 유기적인 과정이다(안정삼, 2016 ; 홍인택, 2020).

이러한 이중 역동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직접적인 틀을 제공한다. 곧 기독교 상담은 죄와 상처, 왜곡된 애착, 거짓 자기 이해 등 ‘옛 사람’의 질서가 해체되고 다루어지는 회복적 성화의 국면과 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으며, 크리스천 코칭은 회복된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식별하고 실천하는 ‘새 사람의 살림’의 국면과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서우경, 2009 ; 조영우, 2020 ; 정희정, 2023). 물론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성화 과정 안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상호보완적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 점진적 성화와 전인적 변화

개혁주의 성화론은 신자의 변화를 본질적으로 점진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웨스트민스터 전통과 이를 계승한 개혁주의 교의학은 성화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으며, 여전히 죄와의 싸움 속에서 점차 진전된다고 보았다(홍인택, 2020 ; Bavinck, 박태현 역, 2011). 이는 성화의 현실이 언제나 긴장과 불완전성을 포함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참된 변화가 느리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매우 현실적인 인간 이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진성은 조력 사역이 조급한 성과주의나 단기적 문제 해결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게 한다. 실제로 많은 코칭 및 상담 담론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산출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개혁주의 성화론은 인간의 깊은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여정임을 상기시킨다(강연정, 2019 ; 이혜정, 2023). 따라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모두 단기적 효과성의 언어를 넘어, 점진적 성화의 시간성과 전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점진적 성화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바빙크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 지성과 감정, 개인과 공동체성이 유기적으로 얽힌 통일체로 보았으며, 성령의 사역 역

시 이러한 전 존재를 향한다고 이해하였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은 정서적 회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크리스천 코칭 역시 목표 달성과 수행 향상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 양자 모두 하나님 형상 회복과 소명적 삶이라는 더 넓은 성화의 목적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권순달, 2015 ; 조영우, 2020).

5.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구분과 연계

개혁주의 전통은 세속 학문과 문화의 성과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는다. 바빙크와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일반은총의 교리를 통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일정한 질서와 통찰, 문화적 유익을 허락하신다고 보았다(Bavinck, 1967 ; DeGraaff & Olthuis, 1978). 이런 의미에서 심리학이나 코칭학의 일부 통찰 역시 인간 이해와 관계 회복, 동기 형성, 행동 변화에 관한 유익한 관찰을 제공할 수 있다(강연정, 2019 ; 이선영, 2011).

그러나 일반은총의 산물은 특별은총의 빛 아래서 비판적으로 분별되고 재해석되어야 한다. 강연정(2019)은 기독교 상담의 통합이 단순한 병렬적 결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경적 인간론과 구원론, 성화론의 목적 안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선영(2011)과 유미경(2018)도 세속 심리치료 기법이 제한적으로 유익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인간 중심적 자아 강화나 자기 승배의 방향으로 사용될 경우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원리는 크리스천 코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희정(2023)은 세속 코칭이 인간 잠재력에 대한 낙관주의를 전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크리스천 코칭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더불어 성령의 주권적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크리스천 코칭 기법은 단순히 목표 달성과 성취를 촉진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성화 사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별되고 재배치되어야 한다(정희정, 2023 ; 조영우, 202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성화는 말씀과 성령의 유기적 통일성 안에서, 옛 사람의 죽임과 새 사람의 살림이라는 이중 역동을 따라, 점진적이고 전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 안정삼, 2016). 또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구분과 연계는 세속 상담 및 코칭 기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적 기준 아래에서 유익하게 전유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다(강연정, 2019 ; 이선영, 2011 ; 정희정, 2023).

이러한 신학적 기초 위에서 볼 때,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서로 분리된 경쟁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강조점을 지닌 상호보완적 조력 사역으로 이

해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정체성과 상호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서우경, 2009 ; 전요섭, 2004 ; 조영우, 2020).

III.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조망

앞 장에서 살펴본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을 단순한 대화 기법이나 실천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성화 사역 안에서 이해해야 할 조력 사역으로 보게 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따라서 두 사역의 차이와 관계를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신학적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성화의 어떤 국면과 더 깊이 연결되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기독교 상담을 주로 회복적 성화의 사역으로, 크리스천 코칭을 주로 진취적·선교적 성화의 사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두 사역을 완전히 분리하거나 대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화의 점진적 여정 안에서 서로 다른 강조점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구분이다(안정삼, 2016 ; 조영우, 2020).

1. 기독교 상담의 신학적 정체성: 회복적 성화

기독교 상담은 인간의 고통과 죄, 상처와 왜곡, 관계의 파괴와 영적 혼란을 다루면서, 복음 안에서 회복과 화해를 지향하는 조력 사역이다(전요섭, 2004 ; 권혜령, 2019). 전요섭(2004)은 기독교 상담의 본질을 세속 심리상담과 구별하면서, 인간 변화의 궁극적 주체를 상담자나 기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은 단지 심리적 증상을 완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죄와 상처로 인해 왜곡된 인간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영혼 돌봄의 사역이다.

강연정(2019)은 기독교 상담의 통합이 세속 상담이론과 성경 구절을 병렬적으로 결합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성경적 인간론과 구원론, 성화론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해정(2023)도 기독교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경험을 분석하면서, 내담자의 문제를 단순히 정서적 증상이나 기능 저하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의 핵심은 문제 자체의 제거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죄와 상처,

관계의 왜곡, 잘못된 자기 이해를 복음의 빛 아래에서 재구성하도록 돕는 데 있다(강연정, 2019 ; 이해정, 2023).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상담은 성화의 여정 중에서도 특별히 ‘회복적 성화(Restorative Sanctification)’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회복적 성화란 죄와 상처, 왜곡된 정서와 관계의 파편화 속에 있는 신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옛 사람의 질서가 해체되며, 복음 안에서 존재의 회복을 경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안정삼, 2016 ; 홍인택, 2020). 기독교 상담은 바로 이러한 회복적 국면에서 내담자가 죄책감과 수치, 상실과 외상, 왜곡된 애착과 거짓 신념을 다루며, 회개와 위로, 용서와 화해, 질서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중심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권혜령, 2019 ; 전요섭, 2004).

2.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정체성 : 진취적·선교적 성화

크리스천 코칭은 일반 코칭과 마찬가지로 질문, 경청, 목표 설정, 실행 점검 등의 과정을 포함하지만, 그 목적과 인간 이해, 변화의 방향성에서 분명한 신학적 차이를 가진다(조영우, 2020 ; 정희정, 2023). Collins(2009)는 Christian coaching을 단순한 성과 향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잠재력과 은사, 사명을 식별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관계적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즉 크리스천 코칭은 자기실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소명 지향적 사역이다.

조영우(2020)는 기독교 세계관 기반 크리스천 코칭을 논하면서, 코칭의 목적을 세속적 성공이나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 실현으로 재정의하였다. 정희정(2023)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세속 코칭의 인간 잠재력 낙관주의를 비판하며, 크리스천 코칭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크리스천 코칭은 인간의 가능성을 무조건 긍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성화적 조력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조영우, 2020 ; 정희정, 2023).

이러한 관점에서 크리스천 코칭은 성화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진취적·선교적 성화(Progressive & Missional Sanctification)’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여기서 진취적 성화란 이미 일정한 회복을 경험한 신자가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정렬해 가는 국면을 의미하며, 선교적 성화란 그 변화가 개인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사명, 섬김과 파송의 방향으로 확장되는 국면을 의미한다(조영우, 2020 ; 권순달, 2015). 따라서 크리스천 코칭은 상처의 치유 자체보다는, 회복된 존재가 은사와 소명, 책임과 실천, 리더십과 사역의 방향을 구체화하도록 돕는 진

취적 국면에 더 큰 비중을 둔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홍석고, 2017).

3.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공통 기반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위와 같이 기능과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몇 가지 본질적 공통 기반을 공유한다. 첫째, 두 사역 모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왜곡된 존재로 이해하며, 참된 변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가능하다고 전제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하재성(2026)은 니케아 신경에 나타난 성령의 고백을 기독교 상담과 연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적 속성이 곧 조력 사역에서 내담자를 치유하는 관계적 원형이 됨을 강조하였다. 둘째, 두 사역 모두 인간의 변화가 단순한 행동 수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성화의 진전이라는 더 깊은 차원을 가진다고 본다(전요섭, 2004 ; 정희정, 2023). 셋째, 두 사역 모두 조력자를 변화의 절대 원인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이해한다. 상담자든 코치든 상대를 바꾸는 주체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청지기적 위치에서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신학적 토대를 가진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넷째, 두 사역 모두 개인의 내면만이 아니라 관계, 공동체, 삶의 방향, 사명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인적 성격을 공유한다(권순달, 2015 ; 이해정, 2023).

실제로 서우경(2009)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이 대화 방식과 변화 촉진 원리에서 일정한 접점을 가진다고 분석하였고, 두 접근이 적절히 연계될 때 내담자 혹은 피코치의 변화가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 배타적 사역이 아니라, 동일한 성화 여정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우경, 2009 ; 권순달, 2015).

4. 회복적 성화와 진취적 성화의 관계 및 차별적 기능

본 연구가 제안하는 회복적 성화와 진취적 성화의 구분은 성화의 본질을 기계적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점진적 성화 안에서 두 사역이 서로 다른 강조 국면을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개념적 장치이다(안정삼, 2016 ; 홍인택, 2020). 이 틀 안에서 볼 때,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개입 초점과 질문 양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 상담은 주로 무너진 존재의 기반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질문 양식 역시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했는가”, “어떤 왜곡이 형성되었는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와 같이 옛 사람의 상처와 죄의 해체에 가깝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반면 크리스천 코칭은 비교적 회복된

기반 위에서 목표 명료화와 소명 분별을 촉진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코칭의 질문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어떤 순종이 필요한가”, “어떤 실행이 가능한가”와 같이 새 사람의 실천과 미래 지향적 변화에 더 가깝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조영우, 2020).

그러나 실제 성화의 과정에서는 회복과 진취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코칭 과정 중에 미해결 상처가 드러나 기독교 상담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기독교 상담 과정 속에서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구체적 실행과 책임 구조를 세우는 코칭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서우경, 2009 ; 이해정, 2023).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담과 코칭을 제도적으로 구획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의 성화 여정에서 어떤 국면의 돌봄이 더 적절한지를 분별하는 신학적 통찰과 사례개념화 능력이다(안경승, 2026 ; 이해정, 202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상담은 복음 안에서 죄와 상처를 다루며 존재의 회복을 지향하는 회복적 성화의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크리스천 코칭은 회복된 존재가 하나님의 소명과 은사를 따라 사명과 파송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진취적·선교적 성화의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조영우, 2020 ; 정희정, 2023). 따라서 두 사역은 서로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서로 다른 국면과 기능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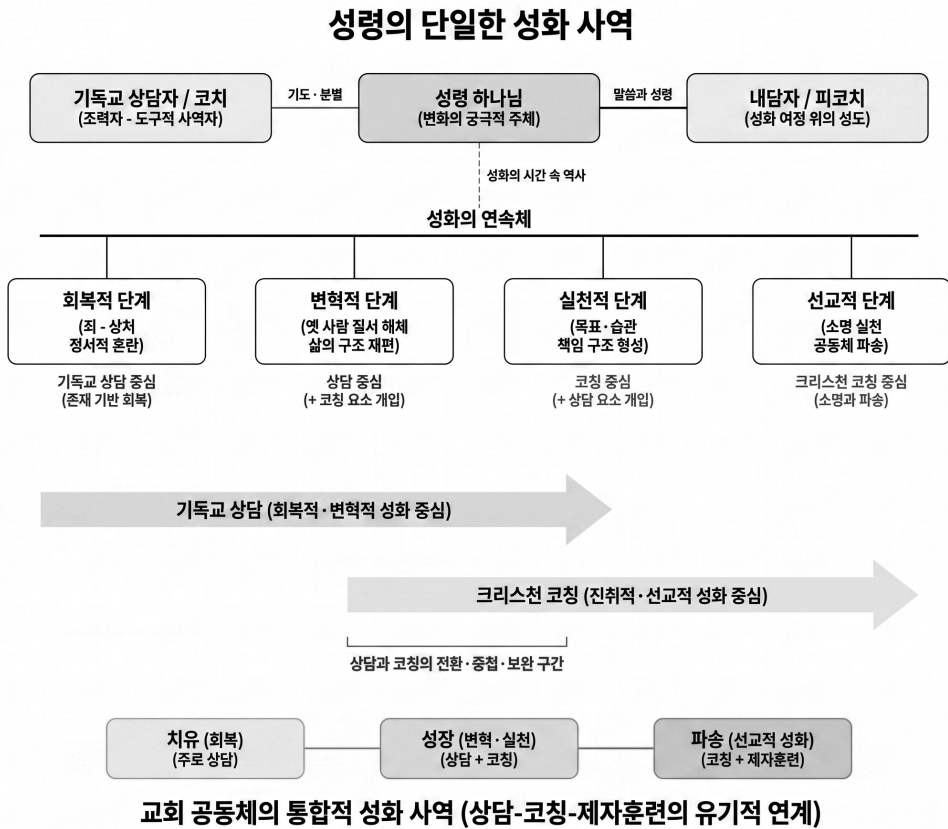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정체성 이해를 바탕으로, 성화의 연속체 안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모형화하고 앞서 언급한 ‘그림 1’의 도식을 통해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서우경, 2009 ; 안정삼, 2016 ; 안경승, 2026).

IV. 성령의 성화 사역 안에서의 상담과 코칭의 관계

앞 장에서는 기독교 상담을 회복적 성화의 사역으로, 크리스천 코칭을 진취적·선교적 성화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 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강조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지, 두 사역을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고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 목회 및 돌봄 현장에서는 상담과 코칭이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서로 교차하며, 한 사람의 삶 안에서 연속적이고 상보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서우경, 2009 ; 조영우, 2020).

본 장에서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단순한 병렬 구조나 기능적 분업으로 설명하기보다, 성화의 연속체라는 통합적 틀 안에서 재구성하여, 이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독자가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적 관계 모형을 ‘그림 1’로 시각화하여 제시한다(안정삼, 2016 ; 안경승, 2026).



[그림 1]. 성령의 성화 사역 안에서 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통합 관계 모형

이 ‘통합 관계 모형(그림 1)’은 성령을 변화의 주체로 두는 삼자적 사역 역동을 상단에 배치하고, 회복에서 선교로 이어지는 4단계 성화 연속체를 중앙에 두며, 하단에는 각 단계별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상대적 비중 및 상호 전환 구간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모형의 구체적 내용을 세 가지 차원(연속체 내 위치, 전환 지점, 삼자적 역동)에서 논의할 것이다.

1. 네 단계 성화의 연속체와 조력 사역의 위치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성화의 과정을 네 단계의 연속체로 제시한다. 이는 성화를 인위적으로 분절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실제 돌봄과 조력 사역의 현장에서 상담과 코칭의 초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틀이다(안정삼, 2016 ; 안경승, 2026).

첫째, '회복적 단계'는 죄와 상처, 정서적 혼란, 관계 파괴, 왜곡된 자기상으로 인해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국면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이해의 재구성, 고통의 해석, 수치와 죄책의 처리, 관계적 상처의 회복이 중요하며, 따라서 존재의 치유를 돕는 기독교 상담이 절대적인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 이해정, 2023).

둘째, '변혁적 단계'는 단순한 상처 치유를 넘어 삶의 내적 구조가 복음 안에서 재편되는 국면이다. 여기서는 잘못된 신념, 반복적 죄의 패턴, 왜곡된 관계 방식이 점차 새로워지고 옛 사람의 논리에서 새 사람의 질서로 이동하는 변화가 일어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홍인택, 2020). 이 단계에서도 기독교 상담의 접근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래 지향적 질문과 삶의 새로운 선택을 요청하는 코칭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개입되기 시작한다(서우경, 2009).

셋째, '실천적 단계'는 내적 변화가 구체적 삶의 습관, 책임 구조, 목표 설정, 관계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국면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전면에 등장하며, 크리스천 코칭의 강점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조영우, 2020). 피코치는 이 단계에서 자신의 은사와 한계, 부르심과 책임을 분별하며, 실제적인 실행 계획과 점검 구조를 세워 나가며(홍석고, 2017 ; 정희정, 2023), 실제 장석남(2015) 연구에도 확인된 바 있다.

넷째, '선교적 단계'는 변화가 개인적 안정과 성장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과 파송, 공동체적 책임과 사명 실천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이 단계에서 크리스천 코칭은 소명 구체화, 사역적 리더십 형성, 공동체적 헌신, 직업과 사명의 통합을 도우며 성화가 삶의 내면을 넘어 세상 속 증언의 형태로 드러나도록 돕는다(권순달, 2015 ; 조영우, 2020).

모형에서 볼 수 있듯, 성화는 내면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파송으로 나아가며,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그 여정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비중을 달리하며 서로를 보완한다.

2.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전환 및 중첩 지점

성화의 연속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이 고정된 경

계선으로 나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돌봄의 과정에서는 상담이 코칭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 있으며, 반대로 코칭이 진행되다가 다시 상담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점도 존재한다(서우경, 2009 ; 이해정, 2023). ‘그림 1’의 하단부는 변혁적 단계와 실천적 단계 사이를 두 사역의 ‘전환·중첩·보완 구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담에서 코칭으로의 전환은 대체로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과 왜곡을 어느 정도 직면하고, 정서적 안정과 현실 검증 능력을 회복하며, 미래의 선택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자기 붕괴 상태에서 벗어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넘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을 때 코칭적 개입이 효과를 발휘한다(홍석고, 2017 ; 조영우, 2020). 이 시점에서 크리스천 코칭은 회복 이후의 공백을 메우며, 성화의 방향성을 구체적 순종의 형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반대로 코칭에서 상담으로의 전환은 목표 설정이나 실행 과제 수행 과정 속에서 미해결 상처, 심층적 수치, 관계 외상, 반복적 자기방해 패턴이 드러날 때 요구된다. 겉으로는 실행력이나 의지력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다루어지지 않은 상처와 왜곡된 자기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강연정, 2019; 이해정, 2023). 이때 코치는 단순히 동기부여나 계획 수정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문제의 핵심이 존재 기반의 회복 영역에 속하는지를 분별하고 필요할 경우 상담적 돌봄으로 연결해야 한다(서우경, 2009).

결국 두 사역의 전환 기준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피조력자의 영적 상태와 성화 과정의 성격이다. 현재 그 사람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 해석과 치유인지, 아니면 선택과 실행, 책임과 방향 설정인지에 따라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비중이 달라져야 한다(안경승, 2026 ; 조영우, 2020).

3. 삼자적 사역 역동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단순한 기능 비교를 넘어 신학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림 1’의 최상단이 보여주듯, 개혁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참된 변화와 성화는 궁극적으로 조력자의 기술에서 나오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근거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따라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는 ‘상담자-내담자’ 또는 ‘코치-피코치’라는 이자적(dyadic) 관계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반드시 성령의 현재적 사역을 중심에 두는 ‘삼자적(triadic) 역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전요섭, 2004 ; 정희정, 2023). 이 삼자적 구조 안에서 성령은 변화의 궁극적 주체이며, 상담자와 코치는 도구적·칭지기적 위치를 가진다. 상담자와 코치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별과 동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역

자이다(강연정, 2019 ; 전요섭, 2004).

이러한 삼자적 사역 역동은 기독교적 조력 사역을 세속적 변화 모델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 세속 모델이 조력자와 대상자의 상호작용 자체에 무게를 두는 반면,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그 관계 한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주권적 개입을 전제한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정희정, 2023). 따라서 상담자는 회복의 대화를 통해, 코치는 실행의 대화를 통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섬기지만,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에 종속된 도구라는 점에서 깊은 신학적 연속성을 가진다.

4. 통합적 관계 모형의 의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는 ‘문제 해결 대 성장 촉진’이라는 단순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양자는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회복, 변혁, 실천, 선교로 이어지는 연속체 위에 놓인 상호보완적 조력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안정삼, 2016 ; 안경승, 2026).

본 연구가 제안한 모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기능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단일한 목적 안에서 둘을 단절시키지 않는다. 둘째, 이 모형은 실제 목회 현장에서 사례를 보다 정교하게 분별하도록 돕는다. 어떤 성도는 상담이 절실하지만 코칭을 받고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미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계속 상담적 돌봄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서우경, 2009 ; 이혜정, 2023). 성화의 연속체 모형은 이처럼 조력의 부적합성을 줄이고, 각 사람의 현재 성화 상태에 더 적합한 도움을 연결하게 하는 목회적 기준을 제공한다. 셋째, 이 모형은 교회 안에서 상담, 코칭, 제자훈련 등을 하나의 통합적 사역 생태계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연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적 돌봄을, 방향 설정과 실행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코칭적 동행을, 공동체적 성숙과 파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자훈련과 사역 훈련을 연결함으로써, 교회는 단편적인 프로그램 나열을 넘어 보다 유기적인 성화 사역 체계를 갖출 수 있다(권순달, 2015 ; 조영우, 2020). 이런 점에서 상담과 코칭의 관계를 성화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일은 학문적 작업을 넘어, 교회의 영혼 돌봄(cura animarum) 구조를 실천적으로 새롭게 조직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계 모형을 바탕으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구분 아래 세속 상담 및 코칭 기법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비판적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목회 현장의 통합적 실천 체계와 개별 사례(Burnout)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V. 기독교 사역 현장을 위한 통합적 제언

앞 장에서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성화의 연속체 안에서 구조화하고, 두 사역이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전환되고 보완되는 통합적 모형(그림1)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모형이 실제 목회 현장과 돌봄 사역에서 유효한 실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세속 상담이론과 코칭 기법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분별하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강연정, 2019 ; 정희정, 2023). 둘째, 이 모형이 교회 현장의 실천적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권순달, 2015 ; 안경승, 2026). 본 장에서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교리를 틀로 삼아 기법의 비판적 수용 기준을 제시하고, 교회 내 통합적 돌봄 체계 및 사례개념화를 통한 목회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관점에서의 기법 수용 기준

한국교회는 다양한 세속 심리학 기법과 코칭 방법론을 무비판적 수용과 무조건적 배척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고민해 왔다. 개혁주의 전통의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구분은 이 양극단을 극복하는 중요한 신학적 해석 틀을 제공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 DeGraaff & Olthuis, 1978).

일반은총의 관점에서 볼 때, 세속 상담이론과 코칭 기법 안에는 인간 이해와 관계 형성, 의사소통, 동기 유발 및 행동 변화 촉진에 관한 유익한 통찰이 포함되어 있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Bavinck, 박태현 역, 2011). 예를 들어 공감적 경청, 인지행동치료의 구조화된 질문, 긍정적 탐구, 실행 책임 점검 등은 하나님께서 일반은총 아래 허락하신 인간 행동의 원리에 관한 경험적 관찰의 산물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와 크리스천 코치는 이러한 기법 자체를 불신앙적이라고 배척할 필요가 없으며, 분별력을 가지고 돌봄의 도구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서우경, 2009 ; 홍석고, 2017).

그러나 일반은총의 산물은 유용성이 신학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특별은총의 빛 아래서 재해석되고 비판적으로 전유(appropriation)되어야 한다(이선영, 2011). 기독교 상담과 코칭이 세속 기법을 수용할 때 지켜야 할 신학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강연정, 2019 ; 정희정, 2023).

첫째, 변화의 궁극적 주체성 기준이다. 세속 기법이 인간 내부의 잠재력이나 자율성에 변화의 근원적 능력을 두는 반면(조영우, 2020), 기독교 조력 사역은 성령의 은혜와 주권적 역사를 변화의 근

원으로 삼아야 한다(전요섭, 2004). 따라서 조력 과정은 인간의 자기 신뢰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존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변화의 목적론적 기준이다. 세속 모델의 목적은 고통 감소, 기능 향상, 자아실현에 집중되어 있다(정희정, 2023). 그러나 기독교적 돌봄의 궁극적 목적은 자아 확장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소명 실현이다. 아무리 효과적인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세속적 성공주의나 인간 중심적 자기 숭배를 부추킨다면 기독교 사역의 틀 안에서는 수용될 수 없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권혜령, 2019). 셋째, 인간 이해의 기준이다. 기독교적 돌봄은 인간을 선한 잠재력의 결정체로 낙관하거나 무의식의 노예로 취급하는 환원주의를 경계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임과 동시에, 부패하여 거짓 자기(false self)를 형성하기 쉬운 존재라는 성경적 긴장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강연정, 2019).

이러한 세 가지 기준(주체성, 목적성, 인간 이해)은 세속 기법을 단순히 “좋다/나쁘다”로 관별하는 선을 넘어, 어떤 기법을 ‘기독교 세계관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천적 지표가 된다.

2. 교회 내 통합적 돌봄 통합 체계화

상담과 코칭을 성화의 연속체 관점에서 통합하는 일은, 개별 사역자의 방법론적 변화를 넘어 교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돌봄 체계 재설계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는 상담을 문제 있는 소수를 위한 특수 사역으로, 코칭을 리더 양성을 위한 별도 훈련으로 분리해 운영해 왔다(권순달, 2015 ; 조영우, 2020). 본 연구가 제안한 모형에 따르면, 교회는 성도의 전인적 성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층위가 순환하는 ‘영혼 돌봄(cura animarum)’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치유 층위 (회복적 돌봄): 정서적 고통, 관계 파괴, 중독, 심층적 수치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위해 전문적 기독교 상담과 상처 회복 사역이 전면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존재 기반을 다시 세우는 기초 공사이다(전요섭, 2004 ; 이혜정, 2023).

2) 성장 층위 (성장 촉진 및 코칭적 동행): 기초적인 정서적 안정을 회복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신앙과 일상의 불일치를 극복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도록 돕는 크리스천 코칭 체계가 제공되어야 한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홍석고, 2017).

3) 파송 층위 (공동체적 책임과 사명): 내적 방향성이 정립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의 멘토링이나 세상 속 직업 소명 현장으로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제자훈련 및 사역 훈련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도를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통합적 관점에서 재구성 되어야 한다(정미영, 2026 ; 조영우,

2020 ; 권순달, 2015).

이 통합적 체계는 고정된 일방통행 프로그램이 아니다. 코칭 훈련(성장 층위)을 받던 중 내면의 깊은 상처가 드러난 성도는 안전하게 기독교 상담(치유 층위)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하고,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내담자는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코칭 그룹(성장 층위)으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상담과 코칭이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치유-성장-과승’의 통합 체계 안에서 순환할 때, 돌봄의 효과성은 극대화된다(서우경, 2009 ; 이혜정, 2023).

3. 통합 모형의 목회적 적용: 사역 소진(Burnout) 사례개념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상담과 코칭의 통합적 관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이론적 모형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떠한 실천적 효용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회 돌봄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평신도 리더의 사역 소진(Burnout)’이라는 가상 사례(vignette)를 구성하여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를 시도하고자 한다.

심각한 영적 무기력과 사역 회피, 그리고 가정 내 갈등을 겪고 있는 40대 평신도 리더 A집사의 사례를 본 연구의 4단계 성화 연속체 모형에 대입해 보면,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연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1) 회복적 국면: 기독교 상담의 개입

사역 소진으로 우울감에 빠진 A집사에게 초기부터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혹은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울 것인가?”를 묻는 코칭적 접근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다(안경승, 2026). 이 시기에는 철저히 기독교 상담 중심의 개입이 요구된다. 상담자는 A집사가 사역에 과도하게 몰두하게 된 이면의 율법주의적 완벽주의, 타인의 인정을 향한 결핍,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다루어야 한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이 단계의 목표는 A집사가 성과 중심의 기제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일, 곧 ‘옛 사람의 질서’를 해체하는 회복적 성화를 겪어내는 것이다.

2) 변혁 및 실천적 국면: 상담에서 코칭으로의 전환

상담을 통해 우울감이 감소하고 십자가의 수용을 통해 자아 정체성이 재구성된 시점(변혁적 단계)에 이르면, A집사는 “이제 다시 가정과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데, 예전처럼 일하다가 다시 쓰러질까 두렵습니다”라고 호소하게 된다. 이 지점이 바로 기독교 상담에서 크리스천 코칭으로 무

게 중심이 이동해야 하는 목회적 전환점이다(서우경, 2009 ; 이해정, 2023). 이 국면에서 코치는 A 집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분별을 돕는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나아가 사역의 양을 줄이고 가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을 스스로 설정하게 하고 실행을 점검한다. 코칭적 동행은 A집사가 과거의 소진 패턴으로 회귀하지 않고 새로운 책임 구조 안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강력한 지지대가 된다.

3) 선교적 국면: 소명의 재발견과 파송

회복과 실천의 여정을 거친 A집사는 맹목적인 사역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과 한계를 인지하는 성숙한 리더로 자라난다. 크리스천 코칭의 지지를 통해, 그는 타인의 시선에 끌려 여러 사역을 떠맡는 대신 자신에게 맡겨진 한두 가지 핵심 부르심에 집중하며, 남은 에너지를 공동체의 상처 입은 자들을 돕는 멘토로 흘려보낸다(조영우, 2020). 이는 변화가 내면에 머물지 않고 이웃을 향해 확장되는 선교적 성화의 구현이다.

결론적으로 사례개념화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단절되거나 취사선택할 대상이 아니다. 영혼의 치유부터 소명의 실천까지 한 사람의 전인적 성화를 통합적으로 돕기 위해, 교회 현장에서 반드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하는 필수적인 동반 사역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을 토대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상담과 코칭은 모두 중요한 돌봄 사역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세속 심리학과 무한 긍정의 자기계발 담론이 무비판적으로 유입되면서 그 신학적 경계와 목적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칼뱅과 바빙크의 성령론과 인간론을 규범적 척도로 삼고,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성화의 연속체’ 안에서 재구성함으로써 두 사역이 성령의 성화 역사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조력 사역임을 논증하였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 전요섭, 2004).

본 연구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성화의 이중 운동, 곧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살림’이라는 구조 안에서 명확한 신학적 정체성을 지닌다. 기독교 상담은 죄와 상처, 왜곡된 자기 이해와

관계의 파열을 다루며 존재 기반을 치유하는 사역으로서 성화의 회복적 국면과 긴밀히 연결된다. 반면 크리스천 코칭은 회복된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책임 안에서 삶의 방향을 분별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사역으로서 성화의 진취적·선교적 국면과 깊이 관련된다. 두 사역은 다루는 초점과 강조점은 다르지만, 모두 성도를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으로 이끄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본질적 연속성을 가진다(안정삼, 2016 ; 홍인택, 2020 ; 조영우, 2020).

둘째, 참된 변화는 인간의 기술이나 통찰 자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관점에서 상담자와 코치는 변화의 생산자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사역 아래에서 섬기는 도구적 청지기이다. 따라서 조력 사역은 성령-조력자-피조력자라는 삼자적 역동(triadic dynamic)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기독교적 돌봄을 단순한 심리기술이나 성과 향상 프로그램으로 환원하는 세속 담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기준을 제공한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 정희정, 2023).

셋째, 두 사역의 관계는 단절적 병렬 구조가 아니라 성화의 연속체(회복적-변혁적-실천적-선교적 단계) 안에서 교차하고 중첩되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 관계 모형(Figure 1)은 어떤 성도에게는 자아의 붕괴를 다루는 상담이 필수적이지만, 일정 수준의 현실 검증 능력을 회복한 이후에는 구체적 순종과 책임 구조를 형성하는 코칭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상담과 코칭은 한 사람의 성화 여정을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가장 온전한 효과를 발휘한다(서우경, 2009 ; 안경승, 2026 ; 이해정, 2023).

넷째,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유기적 관계는 세속 기법의 비판적 수용 기준을 제시한다. 세속 상담이론과 코칭 기법의 방법론적 유용성은 일반은총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으나, 변화의 궁극적 주체성, 변화의 지향점(소명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죄악된 본성에 대한 인간관은 반드시 특별은총의 빛 아래에서 기독교적으로 재배치되고 전유되어야 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 강연정, 2019 ; 이선영, 2011).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가 지니는 학문적 차별성과 실천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문제 해결(상담)과 목표 달성(코칭)이라는 기능적 이분법으로 흩어져 있던 두 사역의 정체성을 ‘성화의 이중 역동(회복과 진취)’이라는 조직신학적 교리로 재정립함으로써, 실천신학과 교의학의 간극을 메우고 학제 간 대화의 튼튼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천적으로는, 삼자적 사역 역동과 4단계 성화 연속체를 시각화한 모형(그림 1)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보다 정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이를 ‘평신도 사역 소진(Burnout)’ 사례와 교회의 ‘치유-성장-파송’ 체계에 적용함으로써,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 그리고 제자훈련이 분리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돌봄 생태계(cura

animarum)로 통합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권순달, 2015 ; 안경승, 2026 ; 조영우, 2020).

결론적으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분리되거나 대립될 사역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주권 아래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는 필연적 동반 사역이다. 이러한 이해는 한국교회가 무분별하게 혼재된 조력 사역의 신학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혼돌봄의 사명을 새롭게 세우는 데 중요한 실천적 토대가 될 것이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 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다만, 본 연구는 주로 개념적 문헌연구와 신학적 해석에 기초하였으므로, 제안된 통합 모형이 다양한 목회 현장(예: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상담기관과 일반 목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며 어떤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통합 모형을 실제 교회와 돌봄 기관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질적·양적 사례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 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연정 (2019).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복음과 상담**, 27(2), 7-33.
- 강현선 (2012). **존 오웬의 정서 이해**.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권순달 (2015). **한국교회 신자의 전인성장을 위한 코칭의 목회적 적용**.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권혜령 (2019). 영혼돌봄의 성경적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청교도 문헌연구를 통한 기독교상담적 원리 고찰. **복음과 상담**, 27(1), 7-42.
- 김수연 (2023). 크리스천 코칭 모델 개발을 위한 성경적 개념화 연구. **신학과 실천**, 86, 987-1016.
- 김정규 (2006). **성경적 코칭(Coaching)의 개념과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정화 (2026). **크리스천 부모의 영적 성숙을 위한 SOUL 코칭모델 프로그램 적용**.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진아 (2022). **인공지능시대의 성경적 인간이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박태현 역 (2011). **개혁교의학**. Bavinck, H. (1985). *Gereformeerde dogmatiek*. 부흥과개혁사.
- 박혜숙 (2024). **크리스천 부모코칭프로그램의 구성과 도구개발: TREASURE Talk 코칭모델 활용**.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서우경 (2009). 크리스천 코칭과 상담의 비교 및 통합적 적용에 대한 효과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8, 33-60.
- 안경승 (2026). 영혼의 상태와 삶의 방향을 분별하는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34(1), 111-134.
- 안보현 역 (1993). **기독교상담의 성경적 기초**. Collins, G. R. (1993).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생명의말씀사.
- 안정삼 (2016). **성령의 사역에 관한 연구: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양형주·이규창 역 (2012). **코칭바이블**. Collins, Gary R (2009). *Christian Coaching: Helping Others Turn Potential into Reality*. IVP.
- 원광연 역 (2003). **기독교 강요**. Calvin, J. (1559).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유미경 (2018). **자존감 증진을 위한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기독교상담학적 적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이선영 (2011). 성경적 상담에서 일반 은총 심리학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복음과 상담**, 17(1), 101-131.
- 이혜정 (2023). **기독교상담 사례개념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임준섭 (2021). **과학주의적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인간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장석남 (2015). **코칭을 활용한 다락방 리더 훈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5R코칭 리더십 활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전요섭 (2004).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 **복음과 상담**, 3, 1-32.
- 정미영 (2026). **성경적 제자양육 개념과 토마스 레너드 코칭 이론의 통합적 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개신대학원대학교.
- 정하윤·도미향 (2021). 중년기 여성을 위한 회복탄력성 향상 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코칭연구**, 14(2), 215-247.
- 정희정 (2023). 개혁주의생명신학과 크리스천코칭. **생명과 말씀**, 37, 94-131.
- 조성국 (2004). 한국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기독교교육논총**, 10, 21-45.
- 조성국 (2017). 헤르만 바빙크(H. Bavinck)의 교육을 위한 성경심리학적 인간론. **성경과 신학**, 81, 51-82.
- 조영우 (2020). 기독교 세계관 기반 크리스천 코칭: 개념화와 실행. **인문논총**, 37, 230-281.
- 조피터계춘 (2018). **바빙크의 인간론에 나타난 목회상담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최정호 (2010). **칼빈의 인간론에 관한 개혁주의적 이해: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 하재성 (2026). 니케아 신경에 나타난 성령의 고백과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34(1), 205-231.
- 홍석고 (2017). 코칭의 목회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기독교문화연구**, 22, 33-56.
- 홍인택 (2020).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의 율법과 성화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Bavinck, H. (1920). *Bijbelsche en religieuze psychologie*. J. H. Kok.
- Bavinck, H. (1931). *Magnalia Dei (Our Reasonable Faith)*. J. H. Kok.
- Bavinck, H. (1985). *The doctrine of God* (W. Hendriksen, Trans.). Baker Book House.
- DeGraaff, A. H. & Olthuis, J. H. (1978). *Joy in Learning: The Curriculum of the Christian School*. Wedge Publishing Foundation.
- VanBelzen, J. A. (2007). *Psychology of Religion: Autobiographical Accounts*. Springer.

성령의 성화 사역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 연구 : 개혁주의적 조망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in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s Sanctification: A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김성준 (고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개혁주의 성령론의 핵심 주제인 점진적 성화의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정체성을 규명하고, 두 사역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현대 한국 교회에서 상담과 코칭은 성도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조력 사역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세속 심리학과 인본주의적 자기계발 담론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해 그 신학적 경계와 사역 정체성이 적지 않게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 칼뱅과 헤르만 바빙크의 성령론·성화론·인간론을 신학적 규범으로 삼고, 게리 R. 콜린스의 코칭 이론과 국내 기독교 상담·코칭 관련 연구들을 이론적 문헌 연구 방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토대는 성화의 이중 운동인 '옛 사람의 죽임'과 '새 사람의 살림'에 각각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기독교 상담은 죄와 상처, 왜곡된 자아를 다루는 회복적 성화의 사역으로, 크리스천 코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명을 분별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진취적·선교적 성화의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참된 변화의 주체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두고, 상담자와 코치를 말씀과 성령의 통일성 아래에서 섬기는 조력적 도구로 이해하는 삼자적 사역 역동 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성화를 회복적·변혁적·실천적·선교적 단계로 이어지는 연속체로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서로 분리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성화 과정 안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사역임을 논증하였다. 넷째, 개혁주의의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교리를 바탕으로 세속 심리·코칭 기법에 대한 비판적 전유의 기준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내담자의 '영혼의 좌표'를 분별하는 사례개념화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담·코칭·제자훈련이 '치유-성장-파송'의 생태계를 이루는 통합 사역의 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을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통전적 영혼 돌봄 (cura animarum)을 수행하는 상보적 사역으로 이해해야 함을 논증하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 조력 사역의 신학적 정체성 회복과 통합적 사역 실천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기독교 상담, 크리스천 코칭, 개혁주의 성령론, 점진적 성화, 영혼 돌봄